

## 이사회 개최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 제2회 이사회가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 협회 중회의실에 개최되었다.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제2회

-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제7조 제3항 제3호의 “축사, 개회사 등 각종 인사문안”을 “대내외 인사문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개정하기로 결의함.
- 회관 임대료 및 관리비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회관 임대료 중 서울건축사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95년도 임대료 대비 30% 증액하기로 결의함.
- 정화조 개조공사 및 예비비 사용(안) 승인의 건
  -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부회장에게 위임함.

## 건축설계사무소정보화 실태조사

국내 건축설계사무소 대부분이 정보처리 및 자료관리를 통한 설계의 과학화와 다양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협회가 첨단정보화 시대를 맞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보센터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서울소재 설계사무소 1백개소를 대상으로 국내 건축설계사무소의 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사무소의 88%가 정보처리 전담인력 없이 설계외의 사무직원이 각종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건축정보처리기관이 없어 정보자료 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에 있어 89년을 기점으로 컴퓨터 사용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특히 전문정보통신에 필요한 모뎀의 보유율은 50%나 되고 조사대상 설계사무소의 80%가 486급이상 펜티엄급의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어 향후 전문건축정보센터가 생기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건축사사무소 대부분이 건축관련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급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계·공사감리 세부기준 마련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 세부기준이 마련돼 빠르면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협회는 연초에 공포된 개정 건축법에 따라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공사감리 업무기준을 마련, 2~3월중 건교부와 협의의 거쳐 업무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설계·공사감리 업무 세부지침에는 그동안 건축사의 업무중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던 설계도서의 종류와 작성기준이 명시되며 현재 건축사보수요율 규정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만 구분돼 있는 건축설계를 기획설계와 계획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공사감리 부문에서는 시공전 업무와 시공단계 및 시공후 건물사용에 대한 부문까지 시공 전과정에 대한 업무가 규정됐으며 건축사의 능력에 따라 감리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별로 책임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 「역사바로세우기」 직원 특별교육 실시



직원교육 광경

우리 협회 본부와 서울건축사회는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역사바로

세우기'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박경환 상근 부회장이 강의를 맡아 본부 및 서울건축사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는 정의와 진리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사바로세우기'의 의미를 다함께 되새기고 또한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과거의 잘못된 잔재 및 상처를 극복해 국민적 자존심과 민족정기를 회복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본부를 시작으로 각 시도건축사회에서도 자체 일정계획에 따라 직원을 대상으로한 특별교육이 실시되었다.

## 서울건축사회, 신입회원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이의구)는 지난 2월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신입회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건축사회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소개와 함께 신규회원이 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겪는 고충에 대한 대처방안, 설계 보수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임원 및 자문위원, 지역건축사회회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 부산건축사회, '96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오리엔테이션 광경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2월 13일 오후 2시부터 회관 12층 강당에서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박성길 회장을 비롯한 신입회원과 임직원 등 총 88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김종욱(한국문화연구원 교수), 전희진(부산건축사회 자문사무사), 심대섭(부산시 건축과장) 등 초빙강사들의 강의에 이어 건축사회 현황 설명회와 만찬 등 다채로운 내용들로 진행되었다.

## 장석웅 회원, 제9회 예총예술문화상 수상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한 제9회 예총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장석웅(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한국건축가협회 전회장) 회원이 건축부문 예술문화대상을, 서상우 국민대 교수가 건축부문 예술문화 공로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장석웅 회원과 서상우 교수는 지난해 실시된 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와 관련해 건축계 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해왔다.

## 건축가협회 제20대 회장에 강석원씨



총회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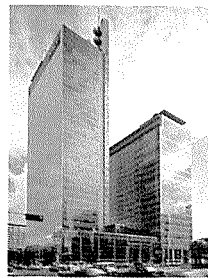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 14일 오후 3시 포스코센터 서관 4층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회장에 강석원 부회장(건축사사무소 그룹가 대표)을 추대하였다. 또한 수석부회장에는 김한근 부회장이, 새 부회장에는 황일인씨가 선출되었으며 김영섭, 김정동, 김춘웅, 박영건, 박용환, 박승, 유원재, 이상해, 이창근, 조재원, 최관영씨가 이사로, 조구현씨가 감사로 각각 선출되었다. 강석원 신입회장은 홍익대 건축미술과와 프랑스 파리5대학 건축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의 커미셔너로 활동하는 등 건축계 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 제1회 고양건축문화상 수상자 발표

고양시가 주최한 제1회 고양건축문화상의 최우수상 수상작에 우리협회 곽홍길 회원((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이 설계한 「주엽동 아파트」(건축주·시공자: 삼익건설(주))가 선정되었다.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고양시가 지역내 준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고

양건축문화상에는 최우수상을 차지한 「주엽동 아파트」외에 우수상 2점 등 총 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들은 고양시 건축과 사무실 입구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3월 30일까지 전시된다.

## 「제14회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발표



포스코 센터

서울시는 지난 2월16일 「제14회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올해의 서울시 건축상 금상에는 포스코센터(간삼종합건축지순, POS. A.C 심인보 공동설계)가 선정되었으며, 대법원청사와 삼성의료원이 은상을, 대나무집 쌍용투자증권 갤러리현대가 동상 수상작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또 글라스타워 올림픽가든타워 영화진흥공사영상아카데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포스코센터는 외부공간 및 내부 공간계획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출품작 선정



기자회견 광경

오는 9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가하는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전시작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제현상설계 당선작을 비롯한 출품작과 명동성당지구 설계경기 당선작 및 입상작이 선정되었다. 이번 건축전의 커미셔너인 강석원 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은 지난 2월 8일 문화체육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전문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들 작품들을 위주로 우

리건축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작품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이번 건축전은 '건축가-미래의 감지자'라는 주제로 열리며, 국가관이 설치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25개국을 포함한 세계 70여개국에 참가하게 된다.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은 지난 1980년부터 미술전과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기한 연장

올해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8일, 올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신고기한을 기술자격의 종류에 따라 기술계 자격취득자는 6월말까지, 학·경력자는 9월말까지, 기능계 자격취득자는 연말까지로 조정하고 이를위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경력신고를 해야 할 기술자 수가 약 15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 1월말까지 신고를 마친 인원은 2만명에 불과해 6월말까지 잔여 13만명이 일제신고를 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또한 지방거주자의 불편을 덜기위해 지방순회 신고접수와 함께 우편접수를 실시하고 신고시 첨부되는 제출서류도 간소화 하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어 온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도는 설계·시공·감리 등 현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담당업무내용을 기재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 정부종합청사 신관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발표



최우수작 모형도

총무처는 지난 2월 5일, 정부종합청사 신관 건축설계경기의 당선작을 발표하였다. 이번 설계경기의 최우수작에는 (주)종합건축종합건축

사사무소의 이승우, 윤석우, 장일훈 공동작이 선정되었으며,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김병년, 신재순 공동작과 (주)엠앤디종합건축사사무소 엄덕문, 이자표 공동작이 각각 우수작에 선정되었다. 이번엔 신속출 정부종합청사 신관은 대지 1,978평에 연면적 15,000평 규모로 금년에 설계를 완료, 98년말경 준공된다. 한편 총무처는 지난 2월7일부터 9일까지 정부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당선작들에 대한 전시회를 가졌다. <본지 90쪽 참조>

## 광명철산·인천송현 주거환경개선 지구 설계현상공모 발표



인천 송현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월 15일, 지역여건에 맞는 쾌적한 단지조성과 최대한의 실내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말 실시하였던 광명철산지구 및 인천송현지구에 대한 설계현상공모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23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설계현상공모에서 광명철산지구는 (주)토문건축사사무소의 응모안이, 인천송현지구는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응모안이 각각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이들 두 작품은 건물형태를 계단식으로 처리하여 경사지형에 적합한 주거동을 계획하고, 인접 녹지지역의 조망확보는 물론 차량·보행자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옥외공간을 계획한 점 등이 특징이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설계현상공모의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두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 설계·시공 표준공기제 도입

빠르면 올해말부터 공공시설사업을 설계 또는 시공할 때 반드시 공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표준공기를 적용해야 하며 또한 공사 뿐만 아니라 설계부문에도 예비준공검사가 도입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가 올해안에

제정해 모든 공사에 적용키로 한 '건설공사 시행절차 규정'의 핵심내용인 표준공기제는 공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설계(공사)기간을 미리 설정하여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준수토록 함으로써 무리한 공기단축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발주기관이 민원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용지매수를 공사착공전에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통 설계시행후 실시하고 있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제를 계획단계나 설계과정과 동시에 시행토록 법제화 할 방침이다.

## 감사원, 「건설기본법 제정」 건교부에 통보

감사원은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전기공사업법 등 6개부처 소관의 12개 건설관련 법령을 하나로 통합한 가칭 '건설기본법'을 제정토록 지난 2월 7일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이는 현 건설관련법령들이 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에 의해 각기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시공관리가 곤란하고 업체 역시 업무에 번잡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개 건설관련법으로는 건교부 소관의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통상산업부 소관의 전기공사업법 에너지융합리화법, 정보통신부 소관의 전기통신공사법, 내무부 소관의 소방법, 문화체육부 소관의 문화재보호법, 환경부 소관의 대기환경보호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우수농토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 서울시, 설계용역 품질관리 강화

서울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용역에 대해 발주단계부터 설계완료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건설공사 설계품질강화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의 토목, 건축, 도시계획 설계와 3천만원 이상의 전기, 조경, 설계에 대해 용역수행전에 용역발주의 타당성과 내용의 적정성, 용역범위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중에도 관련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조사계획과 설계자 기술능력에 대한 적정성, 설계안의 경제성·시공성·유지관리 방안 등의 적정여부, 구조계산 등 각종 계산과 관련시방서 내용의 부합여부 등 용역수행과정에 따라 4단계의 중간검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 수도권 연수 및 연구시설 관련 건축규제 완화 검토

통상산업부는 지난 2월 10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산업기술정책자문위원회에서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수 및 연구시설이 수도권에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술혁신 및 기술상품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각종 세액공제나 특별상각을 산·학·연 공동연구 기금의 연구용 건축물 및 구축물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밖에도 기술개발관련 투자세액공제나 감가상각 등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R&D의 해외투자 및 해외증권 발행, 외자도입과 관련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건설사업관리제 도입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제도」 「건설공사현장실명제」 등이 새로 도입되고 「건설분쟁중재원」이 설립된다. 정부는 지난 2월 13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사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 대책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정비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대규모 공사에 있어 시공업체와는 별도로 건설사업관리회사가 기획설계에서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조정·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건설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해 현재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분쟁중재원으로 확대개편해 이 기구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임 중재인단에 준사법적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 건국대 건축대학원 설립

건국대가 경기대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건축대학원을 설립한다. 건축설계학과와 건축기술학과, 실내건축학과로 나누어 지난해 12월말 최종합격자 60명을 선발한 건국대 건축대학원은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2년 과정과 비전공자 대상의 3년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제 현장업무에 가까운 실무중심의 전일제 수업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전문 단과대학 신설

서울시립대는 도시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될 도시과학 단과대학을 97년에 개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는 이를 위해 원제무(도시공학)교수를 준비위원장으로 한 8명의 준비위원회를 구성, 2월말경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은 도시행정, 세무, 사회복지 분야를 다룰 도시정책과학계열과 도시공학, 건축, 토목, 조경, 환경분야를 담당할 도시시설공학계열로 나뉘게 되며 특히 건축학과의 경우는 6년제 전문학교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건축분야를 더욱 전문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에따라 구조 및 시공관련 수업은 주로 토목학과에서 다루게 된다. 한편 서울시립대는 오는 11월말경에 '도시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국제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 건축전



독창적인 건축개념과 미의식으로 주목받은 프랑스의 현대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의 전시회가 2월 29일부터 3월 2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주한프랑스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형과 도면, 스케치, 수채화 등 1백여 작품이 선보이게 된다. 포잠박의 건축세계는 현대인의 혼잡한 도시생활을 긍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개념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80년대 중반에 설계한 파리 '음악의 전당'은 그에게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프리츠커상을 안겨준 바 있다.

## 숙명여대 9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숙명여대는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2000년대의 푸른도시와 주거환경개발 방향설정' 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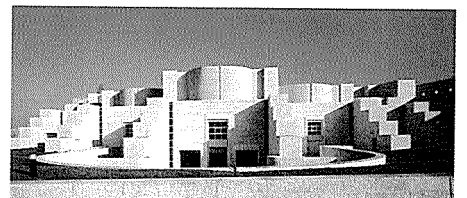
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4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박전자(숙명여대)교수의 별제강연과 임승빈(서울대)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은 장누벨(프랑스 건축가), 제임스 와인스(사이트 대표)씨의 특별강연 그리고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문의 : 전화 710-9435)

## '96서울국제건설·건축대제전 개최

국내의 건설·건축장비 및 기자재의 비교전시를 통해 관련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96 서울 국제 건설·건축장비 및 기자재전」이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한국종합전시장과 대우건설이 공동주최하고 (주)주택문화사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20개국 300여 업체가 참여, 국내외 건설장비 및 건축기자재 분야를 비롯해 공통기자재, 토목기자재, 기계설비기자재, 전기통신기자재 등 7개 분야별로 여러 전시관으로 나뉘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중에는 서울국제조명산업전 및 리빙디자인페어전 등이 동시에 열리게 된다.

## 이스라엘 현대건축 사진전



법정동 전경

이스라엘의 성지 예루살렘 정도 3천년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현대건축 사진전이 지난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삼성갤러리에 열렸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이 주최한 이 전시회는 이스라엘 건축가 Ada Karmi에 의해 92년에 완성된 이스라엘 대법원 청사를 이스라엘의 대표적 사진작가 Marli Shamir가 "The Hall of Light"라는 주제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번 전시작품들은 유대민족의 휴머니즘과 판넬적 전통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의 이상과 목표를 대변하는 대법원 건물을 Marli Shamir가 특유의 낮과밤, 계절의 자연광을 이용한 촬영기법으로 영상에 담아낸 것이다.

## 서울건축학교, 1996년 프로그램 확정 시행

1994년 11월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해 한해 동안 네차례의 단기 워크숍을 시행하였던 서울건축학교(SA/Seoul School of Architecture)가 내년의 정규과정 시행에 앞서

1996년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강좌, 세미나, 기행, 전시회 등을 시행한다.

1996년 프로그램은 'SA금요연속강좌'와 'SA건축가세미나', 'SA건축기행'과 초청건축가의 강의, 'SA전시회'로 구성된다. SA과정은 '설계스튜디오'와 '설계지원스튜디오'로 나누어지는데, 작년에 시행한 일련의 워크숍 프로그램의 설계스튜디오 과정에 대한 준비단계라

면 올해의 강좌 프로그램은 설계지원스튜디오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인원은 24명 내외로 정규대학 졸업 혹은 동등이상의 학력자이면 참가할 수 있다.

신청마감은 3월 11일까지이며 참가 희망자는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서울건축학교/서울 서초구 양재동 287-3/ 전화 02-529-3044

구분	건축가세미나		공개강좌
	날짜	10:00~14:00~ 12:00 16:00	19:00~21:00
3월	15일(금)		예술사상1 도정일
	22일(금)		한국건축사1 김봉렬
	29일(금)		루이스칸의건축1 김광현
	30일(토)	한만원 승효상	
4월	4일(목)		건축과학기술1 윤명오
	6일(토)	최문규 김병윤	
	12일(금)		예술사상2 도정일
	13일(토)	최옥 김영섭	
	19일(금)		루이스칸의건축2 김광현
	20일(토)	김홍일 김인철	
	26일(금)		한국건축사2 김봉렬
5월	3일(금)		건축과학기술2 윤명오
	4일(토)	오성훈 류훈수	

구분	건축가세미나		공개강좌
	날짜	10:00~14:00~ 12:00 16:00	19:00~21:00
5월	10일(금)		예술사상3 도정일
	11일(토)	양남철 민현식	
	17일(금)		루이스칸의건축3 김광현
	18일(토)	서해림 이병재	
	23일(목)		한국건축사3 김봉렬
	31일(금)		초청건축가 로랑 쌀로몽
6월	1일(토)	이종호 정기용	
	7일(금)		예술사상4 도정일
	8일(토)	민선주 조성룡	
	14일(금)		루이스칸의건축4 김광현
	15일(토)	김종규 최동규	
	21일(금)		한국건축사4 김봉렬
	28일(금)		초청건축가 세지마카쥬

### 바로 잡습니다

본지 96년 2월호 본문기사 내용중 일부 잘못 편집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칩니다.

〈p. 104〉

- 본문제목(지면 좌측상단) : 제8차 아카시아 포럼 → 제16차 아시아건축사협회 이사회 및 제8차 아카시아 포럼

- 본문 소제목(지면 우측상단) :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 제16차 아시아건축사협회 이사회

- 사진설명(지면 우측하단) : 제2차 아카시아 포럼 → 제16차 아시아건축사협회 이사회

〈p. 105〉

- 본문 소제목(지면 우측하단) : 21세기의 아시아도시들 → 제8차 아카시아 포럼

〈p. 109〉

- 본문 소제목(지면 우측상단) :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ACAE) → 아카시아 교육위원회(ACAE)

### 원고모집

## 「건축사」지는 건축사 여러분의 대화의 “場”입니다.

월간 「건축사」지는 회원 여러분의 대변지이며, 모든 건축인을 위한 잡지로 항상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에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참여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 〈모집내용〉

- ☆ 시, 수필, 수상, 건축기행문
- ☆ 건축관련 연구논문 또는 기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의 글
- ☆ 회원작품(최근 1년 이내 준공된 작품)
- ☆ 계획작품(현재 계획중이거나 계획으로만 끝난 미실현작품)
- ☆ 작품스케치(작품과 관련된 개념스케치)

대한 건축사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우편번호 : 137-070)  
전화 : 581-5711~4(교), FAX : 586-8823